

■ 공원 탐방

⑦ 5·18공원



상무지구에서 유일하게 자연림을 보유하고 있는 5·18공원의 산책로. 90년대 초 광주시와 중앙정부 간 상무대 무상양여 논란 속에 결국 정부는 전체 부지의 0.77%인 이 공원 부지만을 광주시에 무상으로 넘겨줬다.

■ 도시제안

한국사회는 2000년대 이후 도시공간과 관련한 삶의 질, 도시경쟁력 향상, 낙후된 도시의 도시재생사업, 공공디자인 등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공공성 부족, 민간 위주의 이익 창출, 공공서비스 차원의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개발과정의 통제 수단과 주민의 실질적 참여 통로의 부족함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의춘

겉거나 차창 밖으로 비춘 광주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모습들뿐이다. 그리고 동네 골목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자, 페타이어를 놓아두는 등 동네엔 질서가 없고, 상업 지역의 골목엔 주차전쟁, 음란성 불법광고물들로 혼수를 이루고 있으며, 재래식 주거 밀집지역엔 도시기반 시설이 낙후돼 흥흥한 느낌까지 들 때가 있다.

이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인간미가 흐르는 골목  
커뮤니티 중심 도시계획  
광주다운 창조도시 점경

의 과정을 탈피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계획과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도시환경을 구체화하는 창의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물리적 영역을 넘어 인권, 건강, 교육, 교통, 경제, 문화, 환경의 현안을 함께 고려한 커뮤니티 개념을 담아내야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조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민주절차에 입각한 프로세스로서의 도시계획은 커뮤니티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지역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은 골목의 문화민주주의 사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골목 중심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며, 인간미가 흐르는 골목을 만들 것인가의 가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골목에 우주와 세계를 담아내야 한다.

최근 광주엔 골목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광주의 생명줄이던 골목을 지키려 노력하는 골목지킴이들도 생겨난 가운데 도시의 외곽화로 소외된 도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급격한 세월의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 저장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저장하고, 마을의 사람을 기억하고, 마을의 문화지도도를 그려내고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 공간을 이어주면서 동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강력한 정체성은 시민적 자부심, 커뮤니티정신, 도시 환경에 빠질 수 없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골목탐사의 묘미이며 동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골목 탐사를 통한 도시계획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자치역량강화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광주다운 창조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광주YMCA 시민운동팀 간사>

아픔의 역사 간직한 상무지구 유일한 녹색섬

광주 지도를 펼쳐보면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지금의 상무지구다. 광주천 하류 앞으로 넓게 퍼져있는 이 대지의 주인은 원래 군부대였다. 10·20대는 생소하겠지만 적어도 30대부터는 시내버스 종점인 상무대 인근의 풍경을 기억할 것이다. 작은 주점과 슈퍼마켓들이 고작이었지만 주변은 언제나 군인들이 넘쳐났고 그로 인해 이 인근은 물론 광주 전체의 경기가 좌우됐었다.

지난 51년 보병·포병학교, 53년 기계화학교, 58년 화학학교 공병학교 등 5개 전부대와 학교가 4277만6859.5㎡의 넓은 녹지에 앉아 있는 형태였다(상무대 전경사진 참조).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구릉지와 작은 계곡 등 자연지형을 이용한 이 천혜의 훈련장 '상무대'에서 청춘을 불살랐다.

하지만 광주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주거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광주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 군부대는 당연히 '개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무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연행된 시민들이 군인들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무대를 새로운 택지가 필요한 광주시에 팔아넘겨 이익을 보려했고, 광주시와 야당인 민주당, 시민들은 상무대를 시민공원으로 무상양여할 것을 주장하며 한창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민주당 공동대표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91년 노태우 정권이 약속을 저버리자 "정부가 상무대를 일반도시계획상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광주시민들이 상무대의 시민공원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 김대통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결국 이 거대한 녹지의 0.77%에 불과한 33만578.5㎡를 시민공원으로 광주시에 무상양여하는 선에서 노태우 정권은 상무대를 1994년 말 장성으로 옮기게 된다.

상무대 부지 0.77% 무상양여 공원 조성  
5·18광장·기념문화센터·추모공간 자리

그 후 상무대는 상무지구로 그 이름을 바꾸며 이 무상양여 받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녹지와 구릉지를 깎고 밀고, 평평한 대지를 만든 뒤 택지와 도로를 네모 반듯하게 집어넣었다. 그 많은 나무들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회색빛 아파트와 요란한 네온사인 빌딩, 아스팔트만이 보이는 삭막한 택지가 돼버린 것이다. 상무지구는 또 광주에서 최초로 상세지구단위계획, 즉 각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 배치하는 도시계획기법이 최초로 적용됐으나, 16년이 지난 지금 이 역시 실패작



택지개발 전 상무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으로 남아 있다. 곳곳에 공터가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광주시청 맞은 편은 유충업소와 모퉁이 들어선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지역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한 교수는 "계획된 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계획적인 신도심이 상무지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상무지구에서 유일하게 녹지와 구릉지를 보전한 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5·18공원이다. 5·18공원 이외에도 상무지구 내에는 이미 조성된 5곳의 근린공원과 시민공원을 갖추고 있지만 자연적인 미를 간직하고 있는 공원은 이곳 밖에 없다.

서구 쌍촌동 1268번지인 이 공원의 시작점은 무각사이며, 이 무각사를 시작으로 5·18기념문화센터까지 양쪽의 건물이 공원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94년 11월 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조성 공사는 그 후로 2년이 지난 96년 11월이나 시작될 수 있었다. 공원 전체 면적은 도로부지 등이 빠져 20만4985.6㎡로 줄었으며, 광주시도시개발공사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41억6500만원을 들여 3년 간 조성했다. 그 후로도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개별적인 조경공사를 거쳤으며, 그로 인해 상무지구 중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유일하게 상무지구에서 삼림이 뻗은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살펴보면 5·18과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녹지 곳곳에 촘촘히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장(7578㎡)은 물론 기념문화센터(1만420.51㎡), 조각 및 추모공간(3310㎡), 오월루(282.85㎡), 학생교육문화회관(1만4875.6㎡) 등이 그것이며, 이외에도 공원에 있어야 할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다. 특이한 것은 상무대가 지난 1972년 국조인 단군 왕검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 단선전도 공원 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자, 파고라, 연못, 의자, 체육시설, 쉼터,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어 시민들도 큰 불편 없이 공원을 애용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국제보청기는 착용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보청기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객님의 만족을 드립니다.



본 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since 1982

